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실증 분석

이재은*, 유현정**

이 연구에서는 2007년 12월 7일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재난이 발생한 이후 피해지역 중 하나인 태안군의 피해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총체적인 삶의 질에 대한 현재 상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기서는 삶의 질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피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6가지 지표, 즉 건강지표, 경제지표, 사회지표, 생활지표, 미래지표, 정책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들 삶의 질 측정 지표별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지표의 경우, 기름유출로 인해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받았으며, 경제지표의 경우에는 기름유출 사고가 주민의 소득이나 수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표는 가족 간의 관계, 이웃집과의 관계, 이웃마을과의 관계 모두가 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생활지표에서는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생활수준 모두 나빠졌으며, 생활문제 중에서는 경제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다섯째, 미래지표에서는 소득이나 수입이 예상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기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대부분이 노후대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으며, 장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도 과반수가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태안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생계비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피해지역, 삶의 질, 태안군

I. 서론

재난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하며, 지구상에서 그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재난은 인적 및 물질 피해가 대규모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의 역할 또는 기능 중의 하나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한편으로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다(김승권, 2005: 61). 그러나 현대 사회의 재난은 그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한 두 부서나 기관의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이는 재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피해와 고통은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성기환, 2006: 92).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재난 피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자,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재난에 더 많이 노출되며, 재난현장에서의 재난관리 및 복구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재난 피해가 다발하는 지역의 항구적인 재난예방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유현정 외, 2009: 318).

2007년 12월 7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조선에서 유출된 대량의 기름이 어업과 관광업 등의 생태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국립공원’급의 해안가를 덮친 것은 세계 역사상 처음이다. 태안군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는 해상국립공원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해상국립공원 내의 수만 명의 주민들이 생계를 의지해왔던 어업과 관광업(요식업, 숙박업)을 초토화시켰다. 이번 사고는 기름이 나 타르 덩어리가 실제로 덮친 지역 외에도 바다를 찾던 외국인들의 마음마저 ‘오염’시키며 지역 전체의 관광업까지 종식시켰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산물 시장에서도 실제 오염 상황에 관계없이 태안 지역 해산물이 퇴출당하면서 지역전체의 어업도 종식시켰다(박경신, 2008: 26).

기름유출 사고 이후 최대 피해 지역인 태안군의 피해주민들의 생활은 그 이전과 비교하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 희망을 잃어 버렸고, 불안의 정도도 심각하고, 부끄러우며, 전혀 행복하지도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재 삶의 모습인 것이다. 생활의 터전이기에 떠날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 힘이 드는 현재의 자신의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한 생활의 연속이다.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제는 꿈도 없어졌기에 피해주민들의 삶은 절벽에 부딪친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인의 잘못이든 잘못이 아니든 일단 발생한 재난 앞에서 인간은 한 없이 나약할 수밖에 없고, 단 한 번의 재난 피해경험은 평생을 재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만든다. 태안지역의 완전한 바다 모습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예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바다를 생존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지역민들로서는 생계가 걸린 절대 절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유현정·이재은, 2008: 97-98).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기름유출 사고 이후 태안군 피해지역 주민들이 현재의 삶의 질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총체적인 삶의 질에 대한 현재 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논의의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인지하는 삶의 질의 상태는 어떠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두 가지 접근방법을 활용하였다. 한다. 하나는 삶의 질에 관련된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구문제와 관련된 삶의 질의 측정 지표에 관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다른 하나는 태안

* 제1저자, ** 교신저자.

기름유출 피해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 만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측정을 위해 현재 태안 기름유출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II. 삶의 질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삶의 질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에 대한 관심과 관련 연구들이 증가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이러한 관심의 증가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복리와 행복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며 이 때문에 노인, 장애인, (질)환자, 빈곤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들에 대한 개입이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의 목적이 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임희섭, 1996; Levasseur, Desrosiers, and Noreau, 2004; 김형태: 2005; 김봉선, 2007: 5).

이러한 삶의 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삶의 질 연구는 주관적인 관점과 객관적인 관점 및 통합적인 관점으로 나누어진다(조명한·차경호, 1998: 15-25; 전인철, 1998: 4-10; 하혜수, 1996: 82-84; 김영섭, 1996: 587-596; 조무성, 2002: 54-55). 주관적인 관점의 삶의 질은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만족감으로 규범적인 가치와 삶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인간의 행복과 비슷한 개념이다. 객관적인 관점의 삶의 질은 인간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의 조건을 의미하며 객관적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는데 특색이 있다. 통합적 관점은 내면적인 심리와 객관적인 조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을 함께 고려한다(조명한·차경호, 1998; 김상균, 1996: 217-241). 통합적인 관점 중에서도 물리적, 환경적, 심리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는 학자도 있다(이달곤, 1990: 289-320). 주관적인 관점은 자신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 존재가 자신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가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객관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객관적인 관점은 서로의 조건들을 비교하여 일반적 기준을 만들기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인격적인 존재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기계적인 지표를 만들기 쉬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통합적인 관점이 보다 합리적이다. 삶의 질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타당성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조무성, 2002: 55).

이처럼 삶의 질이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절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한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의 수준과 사회구성원들의 가치의식과 관심에 영향을 받는 상대적인 개념(이영균·김동규, 2007: 225)이라는 점에서 다양하게 삶의 질을 논의할 수 있다. 즉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태안군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은 분명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의 삶의 질과는 차이가 있었을 것이며, 충청남도의 다른 시·군 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과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피해를

입은 이후 태안군 피해지역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 즉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시간적, 공간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삶의 질의 개념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 그리고 사회적인 요소와 개인적인 요소가 함께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적 수준에서의 삶에 대한 정신적 만족감 및 그를 뒷받침하는 사회복지정책이나 경제적 환경, 안전한 생활영역 등의 총체적인 요소들의 집합체로서의 삶의 질 개념을 논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허경미·최기문, 2006: 15).

삶의 질은 크게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으로 나뉜다. 객관적 측면이란 삶의 조건과 환경, 즉 교육수준, 수입, 주택, 고용여건 등을 말하는 것이고, 주관적 측면이란 객관적 조건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말한다(임희섭, 1996; Lane, 1994; 장재윤 외, 2007: 124).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객관적으로 주어 진 상황에 대한 지표를 기준으로 개인과 집단의 삶의 질을 측정하여 왔으나, 삶의 질은 개인의 기대와 실제 만족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 성향을 강조하는 개념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박종민·김서용, 2002: 141-164). 또한 김봉선(2007: 7)에 의하면 삶의 질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은 주로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삶의 질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 삶의 질에 대한 측정지표인 경제적 상태, 인구학적 특성, 건강수준, 교육수준, 노동수준, TV보급률 등의 통계치가 개인의 경험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 행복(happiness),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positive and negative affect) 등의 용어를 통해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많지만 문제는 이상의 용어들이 적절하게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임희섭, 1996; 김봉선, 2007: 8).

개인적 수준에서의 삶의 질을 정의한 Schneider(1976)는 삶의 질이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상태와는 무관하며, 개인이 경험하는 직접적 복지와 관련이 깊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입장은 신도철(1981)의 경우에도 나타나는데 그는 삶의 질이란 자신의 눈을 통해 직접적으로 평가되는 삶의 필요요소로 정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즉 첫째, 삶의 질은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물리적 상태나 상황을 포함해야 하며, 둘째,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행복감의 수준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희섭(1996: 11-16)은 이를 바탕으로 삶의 질은 특정사회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환경에 의해 반응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이 자신의 기대대로 이루어진다고 만족하는 상태라고 정의한다(허경미·최기문, 2006: 16).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 연구에서 태안 기름유출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란 기름유출 사고 이후 새롭게 형성된 태안 피해지역의 객관적 삶의 조건과 환경 하에서 피해주민들 스스로가 삶에 만족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재난이 발생한 이후 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접근을 시도하였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법률적 관점(김성수, 2008: 51-80), 재난관리 관점(이재은, 2008: 75-102; 노진철, 2008: 43-82; 2009: 115-144), 언론의 관점(양정혜, 2008: 81-121), 사회복지적 관점(김혜선, 2008: 45-68; 2008: 45-63), 심리적 건강이나 보건 및 의료 복지 관점(김교현·권선중, 2008: 83-107; 손정남, 2008: 411-420; 손영수, 2008: 83-99; 2008: 69-81), 지역정치적 관점(박동균, 2009: 1-14), 갈등관리와 공동체 복원의 관점(박태순, 2008: 123-145; 류상일·안혜원·이주호, 2008: 150-168), 자원봉사자 운영체계 및 관리적 관점(성기환, 2008: 123-145),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위평량, 2008: 15-43)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가 행정학, 법학, 사회학, 경제학, 언론학, 간호학, 의학, GIS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졌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재난이 발생한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진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 중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재난피해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학술논문인 김교현·권선중(2008: 83-107), 김도균·이정림(2008: 119-152), 김혜선(2008: 45-63), 이시재(2008: 109-144), 노진철(2009: 49-88)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김교현·권선중(2008: 83-107)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태안 주민들의 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즉 태안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464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불안, 우울, 자살 생각, 적대감과 공격성, 편집증 등의 심리적 건강지수와 함께 사고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으로 보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사회적 신뢰와 지지, 낙관성, 삶의 의미추구 및 인구학적 변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연구 결과, 사고가 주민들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해당하는 주민의 백분율이 70.6%에 달했으며, 표준점수 이상($T > 70$)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불안(27.1%) 우울(36.6%) 자살 생각(9.5%) 적대감과 공격성(16.8%) 편집증(12.6%) 등에서 상당했다. 또한 지리적 및 행정적으로 구분한 기준보다는 물리적 및 경제적 피해 노출 수준으로 나눈 기준이 심리적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사고 피해 노출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건강 손상 정도가 비례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고로 인해 심리적 건강이 영향을 받았다는 인과적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김도균·이정림(2008: 119-152)의 목적은 태안군 만리포 해상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가 가의도 주민들에게 미친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가의도는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태안군의 유일한 유인도이며 주민들이 생업활동을 바다환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섬마을로서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주 소득원인 어업과 관광업이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유일한 소득원인 방제인건비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극심한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과도한 방제작업,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의식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

고 있었다. 하지만 높은 직업적 동질성과 공동체적 유대감으로 주민들 사이에 특별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육체와 정신의 피로로 인해 사고이전 활발했던 이웃 간의 일상적 교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선(2008: 45-63)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재난의 해결방안은 피해지역의 지역민에 달려있고 그 지역민을 운영하는 지방자치체도의 순수한 의미의 실현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 사회복지적 민본, 건강, 지역공동체, 가족체제, 지역공동체 붕괴, 노인 부양에 개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경제적인 지원과 사례관리의 실시, resilience를 통한 개인, 집단, 가족의 위기관리,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재수립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시재(2008: 109-144)는 기름유출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개발된 사회적 영향평가기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한편 그 영향에 피해를 입을 사람들의 방어력변수, 즉 취약성 변수를 사용하여 기름유출사건의 영향이 취약성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한 것으로서 조사는 2008년 2월 중 심리영향조사와 함께 진행하였으며, 태안지역의 주민 464명을 대상으로 할당표집에 의한 전화조사로 실시하였다. 지역주민들은 사고이후 수면장애, 약복용의 증가, 불규칙한 생활이 증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그 정도는 피해 노출의 정도에 따라 크게 나타나, 기름유출사건이 주민들의 신체,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사고이후 수습과정에서 정부, 가해 기업 등에 대하여 심한 불신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정부, 태안군 지방자치단체 대해서는 20%정도만이 신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의 정도는 피해노출이 심할수록 더욱 심하였다. 주민들은 사고에 의해, 소득의 감소, 직장의 상실, 농산물판매부진, 관광객의 감소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었으며, 한편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취약성 즉 방어력의 면에서는 소득수준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피해의 정도가 심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피해정도가 덜하다는 것이 조사결과 나타났다. 약복용, 수면장애, 실직 등의 변수에서 소득이 낮은 층은 높은 층에 비해 더욱 피해가 큰 것을 나타냈고, 그 만큼 소득이 높은 층은 방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바로 행복지수이다. 사고이전이나 이후나 다 같이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이다. 상관관계 분석을 해 보니 학력, 연령, 단체 가입 수 등의 변수에서 마찬가지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이들이 취약성의 변수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노진철(2009: 49-88)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가 태안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해양생태계를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침체, 정치적 불신과 사회적 갈등, 지역공동체의 와해, 방제활동 참여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 2차적 사회재난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근거이론에 기초하여 이질적인 사회집단들이 고도로 불확실한 재난상황에서 그로부터 야기된 삶의 질 저하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소통하는지를 탐구하였는데, 삶의 질 저하의 형태로 표출되는 사회재난에 대해 정책결정권자인 행정관료·보건원장, 사업가인 어선어업자·양식업자·관광숙박업자와 시민운동가인 환경운동가, 그리고 숙명론자인 맨손어업인은 서로 다르게 인지하고 소통하고 있다. 근거이

론에 기초한 네 가지 패러다임 모형에 따르면, 재난으로 인한 고도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행정관료·보건원장은 공무원 사회의 위계적인 관료주의 문화에 익숙한 인지와 점진적인 개선의 입장에서 재난복구와 보상에 대한 규제에 기운다면, 어선어업인·양식업자·관광숙박업자 등 사업가는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 시장문화에 익숙한 계산된 인지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별 업종별로 집단화하여 보상 투쟁을 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환경운동가는 평등주의적인 시민운동 문화에 연계하여 정책결정자와 피해주민들 간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사회개혁을 지향하고 있고, 맨손 어업인들은 숙명론적 문화에 이끌려 끝없는 절망과 근거 없는 낙관이 공존하는 모순적인 태도로 기우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 측정 지표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보다는 스스로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행복한 정서를 경험하는지와 같은 주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Diener, 1984; Diener & Diener, 1995; Diener, Suh, Suh, Lucas, & Smith, 1999; Emmons & Diener, 1986; Myers & Diener, 1995)과 행복은 주관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주장(Markus & Kitayama, 1991; Ryff, 1989; Ryff & Keyes, 1995)이 함께 제기되어 왔다(김혜원·홍미애, 2007: 270).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논의로 인하여 삶의 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연구들은 객관적 접근법, 주관적 접근법, 종합적 접근법으로 분류된다(이태종 외, 2005: 213; 이영균·김동규, 2007: 227-229). 첫째, 객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은 객관적으로 관찰가능한 사실 및 사회적 삶의 조건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Liu, 1974; Shin & Snyder, 1983; Meyers, 1987; 이영균·김동규, 2007: 227). 둘째,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은 개개 지역주민의 행복과 만족에 관한 내면적인 심리적 상태는 주관적인 삶의 질 측정지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삶의 질은 개인의 욕구와 기대에 의해 개인 간에 많은 편차가 발생하는 주관적 측면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주관적 측정지표에 관한 논의는 삶의 질의 객관적 측정지표가 시민의 진정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부적합하고 불합리한 것이라는 점과 개개 시민들이 지각하는 주관적 삶의 질과 객관적 측정지표가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주관적 삶의 질 차원은 주로 삶에 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 개인의 삶이 개인의 가치 기준이나 기대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것인가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이영균·김동규, 2007: 227-229). 셋째, 주관적 입장과 객관적 입장을 종합하는 연구이다(임희섭, 1996; 소진광, 1998). 이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의 두 가지 차원을 적절하게 통합하여 접근한다. 즉 개개 시민들이 가지는 주관적 삶의 질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환경을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느냐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시각이다(이영균·김동규, 2007: 229).

이 연구에서는 태안 기름유출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기름유출 사고 이후 새롭게 형성된 태안 피해지역의 객관적 삶의 조건과 환경 하에서 피해주민들 스스로가 삶에 만족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주관적 삶의 질 측정지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건강지표이다. 건강지표에는 신체적 건강지표와 심리적 건강지표, 스트레스 지표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신체적 건강지표와 심리적 건강지표의 경우에는 그것으로부터 나타난 이상 증세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둘째, 경제지표이다. 경제지표는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피해지역 주민이 인식하는 소득이나 수입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셋째, 사회지표이다. 사회지표는 기름유출 사고 이후 가족 간 관계, 이웃집과의 관계, 이웃마을과의 관계를 활용하였다. 넷째, 생활지표이다. 생활지표는 생활에 대한 만족,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 생활문제의 심각성 인식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다섯째, 미래지표이다. 미래지표는 피해지역 주민이 자신과 지역의 미래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자신의 미래 소득, 노후대비, 장래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지표이다. 정책지표는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책을 조사하였다.



<그림 1>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 측정 지표

III. 실증 분석

1. 조사 설계 및 표본 특성

이 연구의 목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이후 태안군 피해지역 주민들이 현재의 삶의 질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총체적인 삶의 질에 대한 현재 상태를 살펴보는 데 있으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도록 노력하였다. 태안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조사대상인 피해지역의 범위를 넓고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자가 직업군별 대표자를 선정한 이후 대표자를 대상으로 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이후 설문지를 배포

하였다. 설문지는 총 310부를 배포하였고 150부(48.4%)가 회수되어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기름유출 사고 이후 많은 연구조사기관들이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조사결과가 환류되지 못하였고, 자신들의 삶의 질 개선에 별다른 변화가 생기지 않았으며, 조사결과 정부정책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어떠한 정보를 받지 못한 관계로 이 연구의 조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응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기간은 2008년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25일간 이루어졌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72	51.1	현재 직업 종사 기간	1년 미만	20	15.8	
	여	69	48.9		1~10년 미만	38	29.9	
	소계	141	100.0		10~20년 미만	26	20.5	
연령	20대	13	9.0		20~30년 미만	20	15.7	
	30대	19	13.1		30~40년 미만	13	10.2	
	40대	36	24.8		40~50년 미만	8	6.3	
	50대	45	31.0		50년 이상	2	1.6	
	60대	25	17.3		소계	127	100.0	
	70대 이상	7	4.8		기름유출 사고 이전의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	1	.8
	소계	145	100.0			100~1000만원 미만	8	6.1
학력	무학	5	3.5			1000~2000만원 미만	23	17.5
	국졸	33	23.1			2000~3000만원 미만	18	13.7
	중졸	30	21.0			3000~4000만원 미만	19	14.5
	고졸	49	34.2			4000~5000만원 미만	14	10.7
	전문대졸	19	13.3			5000~6000만원 미만	14	10.7
	대졸 이상	7	4.9	6000~7000만원 미만		5	3.8	
	소계	143	100.0	7000~8000만원 미만		3	2.3	
직업	어업	27	18.9	8000~9000만원 미만		1	.8	
	양식업	25	17.5	9000만원~1억 미만		1	.8	
	농업	3	2.1	1억 이상		24	18.3	
	숙박업(펜션포함)	11	7.7	소계		131	100.0	
	맨손어업	42	29.3	기름유출 사고 이후 2008년도 예상되는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	6	5.4
	음식업	21	14.7			100~1000만원 미만	46	41.0
	기타	14	9.8		1000~2000만원 미만	37	33.0	
소계	143	100.0	2000~3000만원 미만		12	10.7		
자녀수	1명	14	10.9		3000~4000만원 미만	3	2.7	
	2명	62	48.1		4000~5000만원 미만	1	.9	
	3명	34	26.4		5000~6000만원 미만	4	3.6	
	4명	13	10.0		6000~7000만원 미만	1	.9	
	5명 이상	6	4.6		7000~8000만원 미만	0	0	
	소계	129	100.0		8000~9000만원 미만	0	0	
	거주 지역	남면	8		5.4	9000만원~1억 미만	0	0
소원면		92	61.7		1억 이상	2	1.8	
원북면 단계리		46	30.9		소계	112	100.0	
태안읍		3	2.0		빈 칸			
소계		149	100.0					

표본의 특성은 <표 1>과 같이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자녀수, 기름유출사고 이전 연간 소득, 기름유출사고 이후 2008년도 예상되는 연간 소득, 현재 직업에 종사한 기간, 현재 거주지역 등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표본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51.1%(72명), 여성이 48.9%(69명)로 구성되었으며, 표본의 연령은 20대~30대가 22.1%(32명), 40대~50대가 55.8%(81명), 60대 이상이 22.1%(32명)로 구성되었다.

둘째, 표본의 학력을 보면 무학이 3.5%(5명), 국졸이 23.1%(33명), 중졸이 21.0%(30명), 고졸이 34.3%(49명), 전문대졸이 13.3%(19명), 대졸 이상이 4.9%(7명)를 차지하였다. 또한 표본의 직업 유형은 어업이 18.9%(27명), 양식업이 17.5%(25명), 농업이 2.1%(3명), 숙박업이 7.7%(11명), 맨손어업이 29.4%(42명), 음식업이 14.7%(21명), 기타가 9.8%(14명)로 구성되었다. 기타 직업으로는 나잡업, 민간보육시설운영, 상업, 수산업 유통, 어상자 가공업, 학생, 해녀가 있었다.

셋째, 표본의 기름유출사고 이전의 연간소득을 보면 100만원 미만이 0.8%(1명), 100~1000만원 미만이 6.1%(8명), 1000~2000만원 미만이 17.6%(23명), 2000~3000만원 미만이 13.7%(18명), 3000~4000만원 미만이 14.5%(19명), 4000~5000만원 미만이 10.7%(14명), 5000~6000만원 미만이 10.7%(14명), 6000~7000만원 미만이 3.8%(5명), 7000~8000만원 미만이 2.3%(3명), 8000~9000만원 미만이 0.8%(1명), 9000~1억 미만이 0.8%(1명), 1억 원 이상이 17.8%(21명)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름유출사고 이후인 2008년도에 예상되는 연간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5.4%(6명), 100~1000만원 미만이 41.0%(46명), 1000~2000만원 미만이 33.0%(37명), 2000~3000만원 미만이 10.7%(12명), 3000~4000만원 미만이 2.7%(3명), 4000~5000만원 미만이 0.9%(1명), 5000~6000만원 미만이 3.6%(4명), 6000~7000만원 미만이 0.9%(1명), 1억 원 이상이 1.8%(2명)로 나타났다.

넷째, 표본의 현재 직업 종사 기간은 1년 미만이 20명(15.7%), 1~10년 미만이 38명(29.9%), 10~20년 미만이 26명(20.5%), 20~30년 미만이 20명(15.7%), 30~40년 미만이 13명(10.2%), 40~50년 미만이 8명(6.3%), 50년 이상이 2명(1.6%)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 지역은 남면이 5.4%(8명), 소원면이 61.7%(92명), 원북면이 30.9%(46명), 태안읍이 2.0%(3명)로 나타났다.

2. 분석 결과

1) 건강지표

(1) 신체적 건강

전체 조사 대상자 150명 중에서 149명이 신체적 건강에 미친 영향에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 149명 중에서 기름유출사고가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8.6%(132명)이었다. 응답자의 60.4%(90명)는 매우 많은 영향을, 28.2%(42명)는 약간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을 함으로써 대부분의 응

답자들은 기름유출 사고가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신체적 건강에 미친 영향

	빈도(명)	백분율(%)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5	3.4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2.7
그저 그렇다	8	5.4
약간 영향을 미쳤다	42	28.2
매우 영향을 미쳤다	90	60.4
합계	149	100.0

그리고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사람 132명 중에서 128명이 보인 증세로는 감기기운, 어지러움, 심장이 두근거림, 눈의 아픔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보인 증세는 어지러움으로 35.2%(45명), 다음으로 심장의 두근거림이 25.0%(32명), 눈이 아프다고 응답한 사람이 15.6%(2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증세에는 가슴 답답함, 구토, 늘 불안, 다리가 아픔, 두통, 심장 아픔, 만성피로,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움, 어지러움, 눈, 피부, 화병 등이 있다.

<표 3> 영향 증세

	빈도(명)	백분율(%)
감기 기운	11	8.6
어지러움	45	35.2
심장이 두근거림	32	25.0
눈이 아픔	20	15.6
피부병	7	5.5
기타 증세	13	10.2
합계	128	100.0

(2) 심리적 건강

전체 조사 대상자 150명 중에서 149명이 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에 응답하였고, 분석 결과, 응답자 149명 중에서 기름유출사고가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92.6%(138명)에 이르고 있다. 기름유출 사고가 심리적 건강에 매우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사람이 69.1%(103명)였고, 약간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사람이 23.5%(35명)로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기름유출 사고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4> 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

	빈도(명)	백분율(%)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	.7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1.3
그저 그렇다	8	5.4
약간 영향을 미쳤다	35	23.5
매우 영향을 미쳤다	103	69.1
합계	149	100.0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138명 중에서 마음이 불안함이 35.5%(49명), 희망이 없어졌다는 응답이 30.4%(42명), 화가 난다고 응답한 사람이 16.7%(23명), 마을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8.0%(11명)로 나타났다. 그리고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4.3%(6명), 기타 증세(5.1%)에는 경제, 우울함 등으로 나타났다.

<표 5> 영향 증세

	빈도(명)	백분율(%)
마음이 불안함	49	35.5
희망이 없어짐	42	30.4
화가남	23	16.7
살고 싶지 않음	6	4.3
마을을 떠나고 싶음	11	8.0
기타증세	7	5.1
합계	138	100.0

(3) 스트레스

대형 선박이 지나가면서 내는 뱃고동 소리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스트레스

	빈도(명)	백분율(%)
평화로움에 대한 기대	4	2.7
기름유출 재난	71	47.7
선박충돌 불안감	66	44.3
가족의 평안과 풍요	1	.7
고기잡이에 대한 기대	4	2.7
기타	3	2.0
합계	149	100.0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149명 중에서 대형 선박의 뱃고동 소리를 들으면 느껴지는 것에 대해 기름 유출제난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7.7%(71명), 선박충돌 불안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4.3%(66명)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고기잡이에 대한 기대라고 응답한 사람은 2.7%(4명), 평화로움에 대한 기대 역시 2.7%(4명), 가족의 평안과 풍요라고 응답한 사람은 0.7%(1명)에 불과하였다.

2) 경제지표

전체 조사 대상자 150명 중, 기름유출사고가 소득이나 수입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응답한 사람은 149명 이었다. 분석 결과, 기름유출사고가 소득이나 수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사람은 94.6%(141명)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름유출사고가 소득이나 수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였다.

<표 7> 소득에 미친 영향

	빈도(명)	백분율(%)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	.7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	.7
그저 그렇다	6	4.0
약간 영향을 미쳤다	26	17.4
매우 영향을 미쳤다	115	77.2
합계	149	100.0

3) 사회지표

(1) 가족간 관계

분석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 150명 중, 기름유출사고 이후 가족 간의 관계가 사고이전과 비교해 볼 때 안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64.9%(96명)였고,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31.1%(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름유출사고 이후,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가족 간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가족 간 관계의 변화

	빈도(명)	백분율(%)
매우 안 좋아졌다	57	38.5
약간 불편해 졌다	39	26.4
별 차이가 없다	46	31.1
약간 좋아졌다	5	3.4
매우 좋아졌다	1	.7
합계	148	100.0

(2) 이웃집과의 관계

기름유출사고 이전과 비교했을 때, 사고 이후 이웃집과의 관계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149명 중, 기름유출사고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이웃과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55.7%(83명), 기름유출사고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약간 안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30.2%(45명)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름유출사고 이후 이웃집과의 관계가 사고 이전과 비교해서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이웃집과의 관계 변화

	빈도(명)	백분율(%)
매우 안 좋아졌다	83	55.7
약간 안 좋아졌다	45	30.2
별 차이가 없다	13	8.7
약간 좋아졌다	8	5.4
매우 좋아졌다	0	0
합계	149	100.0

위의 응답한 결과 중에서 기름유출사고 이후 이웃과의 관계가 전 보다 매우 안 좋아졌다고 약간 안 좋아졌다고 응답한 128명 중에서 안 좋아진 이유는 별 문제는 아닌데 서로 예민해져서가 35.7%(45명), 형평에 어긋난 보상 때문이 34.1%(4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이외에 방재 및 태안 재건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17.8%(23명), 사고 피해 정도가 달라서 8.5%(11명)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웃집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 이유에 대해서 형평에 어긋난 보상과 별 문제는 아닌데 서로 예민해졌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표 10> 안 좋아진 이유

	빈도(명)	백분율(%)
형평에 어긋난 보상 때문에	44	34.1
사고 피해 정도가 달라서	11	8.5
방재 및 태안 재건 방법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있어서	23	17.8
별 문제는 아닌데 서로 예민해져서	45	35.7
기타	5	3.9
합계	128	100.0

(3) 이웃마을과의 관계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147명 중, 기름유출사고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이웃마을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89.8%(132명)로 나타났다. 그리고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8.8%(13명)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름유출사고 이후, 이전과 비교해서 이웃마을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이웃마을과의 관계 변화

	빈도(명)	백분율(%)
매우 안 좋아졌다	89	60.5
약간 안 좋아졌다	43	29.3
별 차이가 없다	13	8.8
약간 좋아졌다	2	1.4
매우 좋아졌다	0	0
합계	147	100.0

기름유출사고 이후 이웃마을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응답한 132명 중에서 131명이 안 좋아진 이유에 응답하였다. 즉 131명 중에서 31.6%(42명)가 형평에 어긋난 보상을 그 이유로 들었고, 26.3%(34명)가 별 문제는 아닌데 서로 예민해졌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21.1%(27명)가 방재 및 태안 재건 방법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2> 안 좋아진 이유

	빈도(명)	백분율(%)
형평에 어긋난 보상 때문에	42	31.6
사고 피해 정도가 달라서	22	16.5
방재 및 태안 재건 방법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있어서	27	21.1
별 문제는 아닌데 서로 예민해져서	34	26.3
기타	6	4.5
합계	131	100.0

4) 생활지표

(1) 생활에 대한 만족

지금 현재의 생활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100점 중 몇 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전체 조사 대상자 150명 중에서 143명이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지금 현재의 생활에 대한 점수가 30점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44.7%(64명), 31점-60점이 43.4%(62명)로 나타났다. 88.1%(126명)가 현재의 생활에 대한 점수를 60점 이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생활에 대한 만족 점수

	빈도(명)	백분율(%)
0점	10	7.0
1~10점	24	16.8
11~20점	12	8.4
21~30점	18	10.4
31~40점	14	9.8
41~50점	27	18.9
51~60점	21	14.7
61~70점	10	7.0
71~80점	7	4.9
80점 이상	0	0
합계	143	100.0

(2)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149명 중, 기름유출사고 이후 생활수준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91.3%(136명)이었다. 매우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61.7%(92명), 약간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29.5%(44명)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름유출사고 이후 생활수준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

	빈도(명)	백분율(%)
생활수준이 매우 나빠졌다	92	61.7
생활수준이 약간 나빠졌다	44	29.5
과거와 별 다른 차이가 없다	9	6.0
약간 좋아졌다	3	2.0
매우 좋아졌다	1	.7
합계	149	100.0

(3) 생활문제의 심각성 인식

기름 유출하고 이후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 전체 조사 대상자 150명 중에서 149명이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149명의 응답자 중에서 기름유출사고 이후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 경제 문제라고 응답한 사람이 75.8%(113명)이었고, 건강 문제가 6.7%(10명), 환경 문제가 5.4%(8명)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름유출사고 이후 경제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표 15> 생활문제의 심각성 인식

	빈도(명)	백분율(%)
가정 문제	3	2.0
경제 문제	113	75.8
이웃과의 관계	8	5.4
건강 문제	10	6.7
환경 문제	8	5.4
기타	7	4.7
합계	149	100.0

(4) 사고 이전과 비교했을 때 사고 이후의 삶에 대한 만족도

기름유출사고 이후,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의 정도에 대해 전체 조사 대상자 150명 중에서 148명이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 148명 중에서 사고 이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가 사고 전에 비해 5분의 1수준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7.3%(70명), 3분의 1수준이 24.3%(36명), 절반 수준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4.3%(36명)로 나타났다.

<표 16> 삶에 대한 만족도 변화

	빈도(명)	백분율(%)
사고 전에 비해 5분의 1수준이다	70	47.3
사고 전에 비해 3분의 1수준이다	36	24.3
사고 전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36	24.3
사고 전이랑 비슷하다	5	3.4
사고 전보다 좋아졌다	1	.7
합계	148	100.0

5) 미래지표

(1) 소득

소득이나 수입이 언제쯤이면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조사 대상자 150명 중에서 149명이 응답하였다.

<표 17> 소득

	빈도(명)	백분율(%)
올해 가을	0	0
내년 봄	2	1.3
내년 여름	7	4.7
내년 가을	7	4.7
기약이 없다	133	89.3
합계	149	100.0

분석 결과, 응답자 149명 중에서 언제쯤 소득이나 수입이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89.3%(133명)가 기약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2009년 여름이나 가을쯤으로 응답한 사람이 각각 4.7%(7명)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이나 수입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기약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후대비

현재 노후 대비에 대해 불안한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 150명 중에서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7.3%(101명), 약간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4.7%(37명)에 이르러 전체적으로 노후 대비가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92.0%(138명)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대비에 대해 불안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노후대비 불안

	빈도(명)	백분율(%)
전혀 불안하지 않다	0	0
그저 그렇다	12	8.0
약간 불안하다	37	24.7
매우 불안하다	101	67.3
합계	150	100.0

(3) 장래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

장래 태안 지역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조사 대상자 150명 중에서 148명이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 148명 중에서 장래 태안 지역이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7.4%(85명), 발전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7.6%(26명)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장래 태안 지역의 발전에 대해 회의적이면서도 발전에 대한 희망을 지니는 응답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장래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

	빈도(명)	백분율(%)
전혀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32	21.6
별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53	35.8
그저 그렇다	37	25.0
약간 발전할 것이다	19	12.8
매우 발전할 것이다	7	4.7
합계	148	100.0

6) 정책지표

피해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조사 대상자 150명 중에서 148명이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 148명 중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49.3%(73명)가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라고 응답하였고, 31.8%(47명)는 생계비의 지속적 지원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8.1%(12명)는 관광객 유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가장 필요한 정책이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생계비의 지속적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

	빈도(명)	백분율(%)
생계비의 지속적 지원	47	31.8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73	49.3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	12	8.1
다른 일자리의 제공	7	4.7
건강 회복을 위한 보건 사업	2	1.4
기타	7	4.7
합계	148	100.0

IV. 결론

이 연구는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태안 피해지역 주민의 총체적 삶의 질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선정한 주관적 삶의 질 지표는 여섯 가지로서, 건강지표, 경제지표, 사회지표, 생활지표, 미래지표, 정책지표가 그것이다.

첫째, 태안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표를 측정된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기름유출로 인해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신체적 건강에 미친 영향으로는 어지러움과 심장의 두근거림을 지적하였고, 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으로는 마음이 불안하고 희망이 없어짐을 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지표를 측정된 결과를 살펴보면, 기름유출 사고가 피해지역 주민의 소득이나 수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기름유출사고가 자신들의 경제적 소득이나 수입에 매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사회지표에서는 가족간의 관계, 이웃집과의 관계, 이웃마을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가족 간의 관계나 이웃집과의 관계, 이웃마을과의 관계 모두가 안 좋아졌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웃집이나 이웃마을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는 형평에 어긋난 보상과 별다른 문제는 아닌데 예민해져서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생활지표에서는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88.1%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수준 역시 91.3%가 나빠졌다고 응답하였으며, 생활문제로는 경제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다섯째, 미래지표에서는 소득이나 수입이 예전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기약이 없다는 응답이 89.3%로 나타났고, 92%가 노후대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다. 장래 태안지역의 발전에 대한 기대도 과반수가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태안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생계비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동안 재난이 발생하면 늘 복구에만 급급한 나머지 그동안 간과해 왔던 또 다른 측면에 대한 배려도 이제는 가져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무너진 벽을 쌓고 다리를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들에게 일괄적인 보상금의 지급이나 물리적인 복구에 한정하는 재난관리서비스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지속적인 간호 혹은 상담서비스를 통해 삶에 대한 애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나아가 경제적 손실이 또 다른 정신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가계 재무 상담이나 교육 또한 멘투멘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유현정·이재은, 2008: 116).

지금까지의 연구에 기초하면,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이후 태안군 피해지역 주민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삶의 질은 매우 낮은 수준의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각의 측정지표에서의 항목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선, 건강지표와 관련해서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 특히 피해지역 주민의 스트레스 해소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소득이나 수입이 영향을 받았으며, 실제로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이후 응답자들의 연간소득 분포가 크게 변화하였다. 기름유출 사고 이전에 1억 이상의 연간소득자가 24명이었는데 반해 기름유출 사고 이후에는 2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기름유출 사고 이전에는 연간 1,000만원 미만 소득자가 6.9%(9명)이었는데 반해 사고 이후에는 46.4%(52명)로 급증하였다. 따라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지표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름유출 사고 이후 공동체 사회에서의 가족 간 관계, 이웃집과의 관계, 이웃마을과의 관계가 모두 안 좋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고 이후 예민해지거나 형평에 어긋난 보상, 방제에 대한 의견차이 등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동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기름유출 사고는 건강이나 경제,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에 대한 만족도나 생활수준, 삶에 대한 만족도 등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 응답자의 86%가 60점 이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삶에 대한 만족도를 사고 이전과 비교하여 측정된 결과 사고 이전에 비해 5분의 1 수준이라는 응답이 47.3%(70명), 사고 이전에 비해 3분의 1 이하와 절반 이하라는 응답이 각각 24.3%(36명)에 이르렀다. 따라서 진정으로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생활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함께 나타나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의 삶의 질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태안군의 피해지역 주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소득이나 수입이 언제쯤이면 사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가하는 질문에 기약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89.3%(13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7.4%(85명)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기대를 불러 일으켜주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노후대비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49.3%(73명)가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응답자의 31.8%(47명)가 생계비의 지속적 지원이야말로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생계비의 지속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교현·권선중.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태안 주민들의 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 ECO: 환경사회학연구. 12(1): 83-107.
- 김도균·이정립.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의한 섬 주민들의 삶의 변화: 태안군 가의도를 중심으로. ECO: 환경사회학연구. 12(2): 119-152.
- 김봉선. 2007. 장애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 여성마비인의 환경적 특성과 사회적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9: 5-28.
- 김상균. 199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잡이. 서울: 나남.
- 김성수. 2008. 해양 유류오염의 기존 배상 사례 검토: 씨프린스호 및 에리카호 사건을 중심으로. 유류유출 피해지역의 미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방안(2008. 2. 13, 충청남도·태안군 등 우리바다 살리기 제2차 세미나 발표논문집). 51-80.
- 김승권. 2005. 한국 재해구호의 현황 및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1(2): 61-77.
- 김영섭. 1996. 21세기 한국인의 삶의 질과 사회정책. 21세기 한국행정론. 587-596.
- 김형태. 2005. 상대적 경제 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 자료집. 515-532.
- 김혜선. 2008. 기름유출지역의 사회복지지원체계 방향: 태안지역을 중심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주민의 복지욕구(2008. 9. 6,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한국정책포럼,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재민사랑본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공동주최, 희망제작소 대회의실). 45-68.
- 김혜선. 2008. 유류유출 피해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문제. 국가위기관리연구. 2(1): 45-63.
- 김혜원·홍미애. 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정도와 설명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4(2): 269-297.
- 노진철.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초기대응과 재난관리의 한계. ECO: 환경사회학연구. 12(1): 43-82.
- 노진철. 2009. 고도 불확실성의 재난상황에서 삶의 질 저하에 대한 인지와 소통: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중심으로. ECO: 환경사회학연구. 13(1): 49-88.
- 노진철. 2009. 국가 재난관리체제의 기능과 한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2(1): 115-144.
- 류상일·안혜원·이주호. 2008. 갈등원인별 분석을 통한 지역갈등관리 방안: 충남 서해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를 중심으로. 충청지역연구. 1(1): 150-168.
- 박경신. 2008. 태안문제 3원칙 '완전복구, 완전보상, 가해자 무한책임' 지켜야.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134(2008. 1): 26-29.
- 박동균. 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지역정치권의 위기대응. 한국위기관리논집. 5(2): 1-14.
- 박종민·김서용. 2002. 한국인의 삶의 질. 아세아연구. 45(2): 141-164.
- 박태순. 2008. '서해안 유류피해사건' 관련 갈등분석과 평가. 유류유출 피해지역의 미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방안(2008. 2. 13, 충청남도·태안군 등 우리바다 살리기 제2차 세미나 발표논문집). 35-49.
- 성기환. 2008. 유류유출 피해지역에서의 자원봉사자 운영체계 및 관리 전략. 유류유출 피해지역의 미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방안(2008. 2. 13, 충청남도·태안군 등 우리바다 살리기 제2차 세미나 발표논문집). 123-145.
- 소진광. 1998. 삶의 질 개념과 도시정책적 함의. 지역사회개발연구. 23(1): 65-84.
- 손영수. 2008. 유류오염 사고와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 및 보건: 의학적 측면과 이와 관련된 배상에 대하여. 유류유출 피해지역의 미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방안(2008. 2. 13, 충청남도·태안군 등 우리바다 살리기 제2차 세미나 발표논문집). 83-99.
- 손영수. 2008. 태안주민의 심리의학적 치유를 위한 의료복지의 필요성.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주민의 복지욕구(2008. 9. 6,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한국정책포럼,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재민사랑본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공동주최, 희망제작소 대회의실). 69-81.
- 손정남.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피해지역 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상태, 분노 및 자살 생각에 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7(4): 411-420.
- 신도철. 1981. 한국인의 '삶의 질' 대연구, 주관적 지표에 의한 분석. 정경문화. 195: 26-47.
- 양정혜. 2008. 환경재난 뉴스의 프레임: 국내 주요 일간지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 보

도 사례.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9: 81-121.

유평량.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오염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태안군을 중심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주민의 복지욕구(2008. 9. 6.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한국 정책포럼,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재민사랑본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공동주최, 희망제작소 대회의실). 15-43.

유현정 · 이재은. 2008.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해 본 이재민의 반응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4(2): 97-118.

유현정 · 이재은 · 노진철 · 김검훈. 2009. 재난을 바라보는 다섯가지 시선. 서울: 대영문화사.

이달곤. 1990. 삶의 질, 정치공동체와 개인의 자유(21세기 위원회 세미나 주제). 21세기 행사자료. 289-320.

이시재.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영향 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12(1): 109-144.

이영균 · 김동규. 2007.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4): 223-250.

이재은.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태안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 2008태안국제환경 포럼 초청세미나: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태안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2008. 12. 8. 안면도 오션캐슬 쥬피터홀). 1-17.

이태종 · 이근수 · 송건섭 · 이승철. 2005. 광역생활권내 자치단체간 삶의 질의 비교 평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2): 211-229.

임희섭. 1996.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5(1): 5-18.

장재윤 · 유경 · 서은국 · 최인철. 2007. 일상재구성법(DRM)을 통해 살펴본 남녀직장인과 주부의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 123-139.

전인철. 1998. 삶의 질의 개념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조명환 ·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조무성. 2002. 한국행정인은 누구인가? 삶의 질, 인간형, 행정문화, 모범사례.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하혜수. 1996. 도시정부의 '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정보. 30(2): 81-95.

허경미 · 최기문. 2006. 경찰공무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 11-46.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안(문석호의원 대표발의). 2007. 12. 31.

Diener, E. & M. Diener.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5-1117.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Diener, E., E. Suh, R. Lucas, & H. Smith.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Emmons, R. A. & E. Diener. 1986. Influence of Impulsivity and Sociability o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211-1215.

Lane, R. E. 1994. Quality of Life and Quality of Persons: A New Role for Government? *Political Theory*. 22(2): 1-30.

Levasseur, M., J. Desrosiers, and L. Noreau. 2004. Is Social Participation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of Loder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6(20): 1206-1213.

Liu, Ben-Chieh. 1974. Quality of Life Indicator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 187-208.

Markus, H. & S. Kitayama. Culture and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Myers, D. 1987. Community-relevant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Urban Affairs Quarterly*. 23(1): 108-125.

Myers, D. G. & E. Diener.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Ryff, C. D. & C. L. M. Keyes.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49-559.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Schneider, M. 1976.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dicators Researc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6(3): 297-305.

Shin, Doh C. & Wayne Snyder. 1983. Economic Growth, Quality of Life, and Development Policy: A Case Study of South Korea.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6(2): 195-213.

李在恩: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한국의 위기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집행구조의 다조직적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2000), 현재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위기관리, 조직이론, 정책집행론 등이며, 시민참여와 거버넌스(공저, 2006) 등의 저서와 “국가감등관리의 효율화 방안”(2009), “한국 행정학에서의 위기관리 연구경향 실증분석: 1987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구논문을 중심으로”(2009), “Global Governance and Social Capital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2010) 등이 있다(jeunlee@chungbuk.ac.kr).

俞炫汀: 성균관대학교에서 가정학 박사(소비자학 전공)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인터넷 쇼핑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델-20, 3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2001), 현재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세부 전공분야는 소비자행동, 소비자교육 및 정책 등이며, 다양한 연구방법론의 개발과 적용에 관심을 갖고 있다. 소비자투자자와 보험(공저, 2006), 재난을 바라보는 다섯가지 시선(공저, 2009) 등의 저서와 “식품구매시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이 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구조모형분석-서울과 상해소비자를 중심으로”(2008),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한 재난관리서비스의 개선 방안”(2008) 등의 연구논문이 있다(yoohj@chungbuk.ac.kr).

투 고 일: 0000년 00월 00일
게재확정일: 0000년 00월 00일

Analyzing the Disaster Victim's Quality of Life in the Case of Hebei Spirit Oil Spill

Jae Eun Lee, Hyun Jung Yoo

In this paper, we have tried to search for the present condition of disaster victims' quality of life in Taeon local government severely afflicted by the accident of Hebei Spirit oil spill disaster on 4 December in 2007 and would like to provide some good implic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for the devastated area's residents. For accomplishing the research goal, this paper reviewed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bout the QOL and the related states of arts with Hebei Spirit accidents, and developed and used the indicators for measuring the QOL in Taeon as follows: health, economy, social, living, future, and government policy.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onditions of residents in disaster-afflicted area, all most all the indicators are affected negatively by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key word: Hebei Spirit, oil spill affected area, quality of life(QOL), Tae-an